

12/20(월) 욥기 묵상 31

욥기 21:1-3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1장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친구인 소발의 말을 반박하면서 악인이 잘되는 사례를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문하게 됩니다. 욥은 의인과 악인을 소발의 말처럼 그들의 삶으로만 모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욥의 반박

욥은 소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대답하기 시작합니다(2-3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비록 욥은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지난 시간에 소발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주장을 마무리했습니다(욥 20:27-29,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의 주장은 악인은 이 땅에서 결코 잘될 수 없으며 망하게 될 운명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분깃이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박이 7-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7-9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주장하는 욥의 반박은 ‘왜 악인은 오래 살기도 하고 그들의 후손은 번영을 누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발의 주장과는 달리 이땅에서 악인에게 하나님의 벌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고 욥은 말합니다. 심지어 악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14-15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 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이 기도를 조롱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란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친밀한 교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축복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욥의 질문

욥은 악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결코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17-22절). 하지만 욥의 말은 악인의 심판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경험한 바로는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어떤 이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23-25절). 이같은 사실을 통해 욥은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짓게 됩니다(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

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면서 잘못된 하나님의 변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하거나 또는 한때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아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사건 등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인생에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친구들은 교리적인 차원에서 악인의 운명을 말했다면 욥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한 바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욥도 궁극적인 차원에서 친구들의 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강조하는 바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결과 만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다 설명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신자에게 주어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삶의 밑바닥에서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물론 욥과 요셉과 같이 이 땅에서 인간적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주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2021년 겨울에 들어 러시아가 10만 명이 넘는 자국 군대를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배치함에 따라, 이 지역에 2021년 겨울에 최악의 경우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서방 정보기관 및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경고가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2021년 11월 기자들에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갈등의 초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퇴임을 앞둔 영국 국방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와 전쟁에 대비해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충돌의 긴장이 해소되고, 지역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교회 각 위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음악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T국 김흥기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